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 미술진흥정책 관련 행정조직 및 예산
3.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유형별 고찰
4.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2002)의 미술 관련 계획
5. 결론: 국민의 정부 미술진흥정책에 대한 평가

## 1. 서론

미술과 정책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매년 정부예산의 1%이상을 문화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술계 현장에서는 거의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간혹 미술계 누군가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았다는 소식 정도나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사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기대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의 면면과 비교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미지는 이러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는 국민의 정부 시기 내내 확대 재생산되었고 급기야 정권 말기에는 예술계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불만의 골자는 문화의 세기, 문화의 시대라는 문화관광부의 구호는 결국 국 문화도 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선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의 정부 시기에 예술진흥정책, 좁게는 미술진흥정책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불만이 나왔던 것일까. 사실 그 실체에 대해 정확

하게 파악하고 있는 예술계 인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법, 제도, 정책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그러한 정보의 단편적인 것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국민의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던 미술진흥정책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려고 한다. 사실 어떤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가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쉽게 잊혀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정리해두는 일도 의의가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 2. 미술진흥정책 관련 행정조직 및 예산

### 1) 행정조직

문화관광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예술 이외에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어, 종교도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복합적인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국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정당성을 갖는다. 사실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개념에 기반하여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의 문화홍보부나 일본의 문화청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나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와는 상당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sup>1)</sup>

문화관광부에서 미술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술국 예술진흥과이다.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하면, 예술국은 예술진흥과, 공연예술과, 전통지역 문화과, 문화교류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예술진흥과는 예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디자인 등 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학 및 조형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문학 및 조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예술원 및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련된 업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sup>2)</sup> 예술진흥과는 예술국의 주무과로서 예술진흥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와 함께 예술장르 중에서 조형예술과 문학에 대한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

<sup>1)</sup>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영국의 문화정책』, 1999, pp. 37-38.

<sup>2)</sup>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술진흥과는 대개 8-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미술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인력은 2-3명으로 이들이 국가 전체의 미술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진흥과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미술 관련 소속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다. 하지만 미술장르와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예술국 공연예술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공예과(문화재청), 문예진흥원 산하 마로니에 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문화정책국),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과 서예관(예술국 공연예술과), 한국공예문화진흥원(관광국)이 있다. 비록 문예진흥기금은 예술진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메세나 업무와 함께 문화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 미술 중에서 공예와 디자인이 문화산업으로 분류되어 문화산업국에서 관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술진흥과가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되 순수예술로서 진흥하는 것이라면 이들을 산업적으로 진작시키는 부분은 문화산업정책에서 담당한다는 기능적 분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분류도 일관성이 없는 상태이다.

공예는 문화상품으로 분류되어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2000년에 설립하였는데 현재는 공예를 관광기념품으로 간주하여 관광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디자인 정책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미 상당 부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1년도 예술진흥과 주관으로 예술의전당에 디자인미술관이 설치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술진흥과가 관장하고 있는 미술진흥정책은 미술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순수미술인 회화와 조각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술진흥정책이 여전히 모더니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 예산 및 기금

### ① 정부예산

국민의 정부 시기에 문화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대비 1%를 넘어서게 되었다. 문화예산 1% 시대는 2000년에 전년도 대비 45%라는 예산 증액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이는 매우 파격적인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산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분야를 합한 것으로 주로 문화산업과 관광분야에서의 예산증액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문화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 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으며 1998년 약 3천억 원에서 2002년 약 5천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화정책국과 예술국 산하의 소속기관들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규모 국립기관들의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건립 지원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닌 예술계 지원 예산은 2002년에 약 961억원이었으며, 이 중 미술지원사업 예산은 약 66억원이었다.

〈표 1〉 국민의 정부 시기 문화예산 추이

(단위: 억 원)

연도별	합 계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 광		문화재	
		%		%		%		%		%
1998	4,848	100	3,050	62.9	160	3.3	292	6.0	1,346	27.8
1999	6,647	100	3,237	48.7	1,001	15.0	789	11.9	1,620	24.4
2000	9,639	100	4,237	44.0	1,787	18.5	1,057	11.0	2,558	26.5
2001	10,458	100	4,346	41.6	1,475	14.1	1,912	18.3	2,725	26.0
2002	12,155	100	5,014	41.3	1,958	16.1	2,189	18.0	2,994	24.6

※ 출처: 문화관광부, 『2002 문화정책백서』, 2003, p. 71.

〈표 2〉 2002년도 미술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02
미술창작활동 지원	1,080
디자인 미술관 운영 지원	1,300
문학·미술행사 지원	150
유명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 지원	140
광주비엔날레 지원	2,000
부산비엔날레 지원	1,000
사진문화센터 건립 지원	1,000
합 계	6,670

※ 출처: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②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4,004억 원이 적립되었다. 문예진흥기금의 연간 사업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약 400억 원 정도이다. 지원사업은 크게 예술진흥, 문화복지,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영상문화산업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예술진흥에 대한 지원비는 약 160억 원 정도이며 미술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계속 줄어들어 2001년도에는 약 1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sup>3)</sup> 이는 전국의 미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하기에 부족한 규모이다. 게다가 미술분야에 대한 기금지원이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예, 디자인, 건축 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신청 대비 선정 건수와 금액은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지원신청 건수에는 선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복수지원 등의 허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원수요에 비해 실제 지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3〉 국민의 정부 시기 문예진흥기금 예술진흥 지원사업 추이

(단위: 백만 원)

분 야	1998	1999	2000	2001
전체사업비	49,979	50,070	93,518	41,119
예술진흥	8,851	12,935	16,930	16,605
- 문학	714	964	1,003	1,260
- 미술	1,736	1,726	917	1,011
- 공연예술	2,483	4,574	4,600	4,916
- 전통예술	822	966	978	946
- 예술일반	3,096	4,705	9,432	4,662
- 지역예술	-	-	-	3,810

\* 출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진흥기금 지원효과 분석』, 2002, pp. 51-52.

### 3.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유형별 고찰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미술진흥정책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sup>3)</sup>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앞의 책, pp. 39-55.

<sup>4)</sup> 앞의 책, p. 49.

## 1) 창작스튜디오 조성

국민의 정부 시기 미술진흥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1998년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어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우선 문예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논산미술창작실(충남)과 강화미술창작실(인천)을 조성하였다.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시행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폐교를 창작스튜디오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1999년부터 한국마사회에서 1개 스튜디오 당 1억 원씩 연간 45곳의 조성비를 지원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된 창작스튜디오는 전국에 23개이다.

〈표 4〉 폐교 활용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조성지 (23개소)	경남 김해	대구 달성	강원 강릉	광주 북구	전남 함평
		경기 양평	충북 청원	경기 안성	전남 해남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충북 제천	경남 산청
		충북 단양	전북 김제	전남 담양	강원 정선
		전북 무주	경북 김천	경북 상주	
		경북 구미		경남 남해	
		경북 성주			
	(1개소)	(7개소)	(5개소)	(6개소)	(4개소)

※ 출처: 문화관광부, 『2002 문화정책백서』, 2003, p. 149.

그러나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고, 문예진흥원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작가의 별장처럼 이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2002년 창동에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도심형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고양시에 제2의 국립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였으며 현재 1기 작가를 선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립창작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후원회 조직인 (사)현대미술관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간지원에만 머물러 본격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2) 미술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미술 보급의 핵심적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미술관은 전국에 총 52개관이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 분관이 있으며 공립이 1개관, 사립이 41개관, 대학 2개관이 있으나 전체 미술관에서 사립미술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별 편차도 심한 편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공립미술관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한 개의 시도에 하나의 미술관 건립사업을 실시하여 1관 당 20억 원씩 정액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도서관박물관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에 포함하여 건립비용의 30%이내에서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 강원, 전북에는 미술관이 한 관도 없으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는 1개의 미술관만이 있어 미술가의 창작진흥과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핵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5〉 지역별 미술관 운영 현황

(2002.12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	3	1	3	3	2	0	15	0	1	3	0	3	2	1	2	62

※ 출처: 문화관광부, 『2002 문화정책백서』, 2003, p. 128.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미술관 정책에서 성과라면 학예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인력으로서 학예사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들을 국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학예사 자격제도는 미술관의 학예사 배치율의 무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유명무실한 자격제도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출발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sup>5)</sup>

## 3) 대안공간 및 비영리 갤러리 지원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시행된 정책 중에서 젊은 작가의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2000년 5월에 개관한 ‘인사미술공간이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일종의 국립 대안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인사아트센터에 공간을 대여하여 문을 열었다. 전시장 규모는 마로니에 미술관보다 작지만 미술활동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과 젊은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장 및 카탈로그 제작지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의 기금 지원사

<sup>5)</sup>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2, pp. 182-183.

업이나 마로니에 미술관의 전시장 대관 사업보다 훨씬 적극적인 지원방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6~7개소에 매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지원예산은 약 2억원으로 공간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선이다. 대안공간 지원사업비는 공모를 통한 작가선정, 개인전을 위한 전시장 무료 제공, 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미술공간과 유사한 지원체도를 운영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대안공간마다 성격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술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공간을 대관화랑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한 문화 환경 개선

정부는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예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건축물 미술장식 체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 제도를 건축규제로 보는 경제적 관점에 밀려 미술장식 비용을 0.7%로 축소할 바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로 인한 연간 시장규모는 2002년도에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표 6〉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구분	건축물 연면적(m <sup>2</sup> )					계	
	1-2만	2-3만	3-4만	4-5만	5만이상	수량(점)	가액
2000년	43	75	78	72	351	619	33,204
2001년	112	85	151	63	358	769	55,380
2002년	205	128	117	58	239	747	51,562
계	360	288	346	193	948	2,135	140,146

※ 출처: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그러나 이 제도는 담합과 비리의 온상으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면서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법의 개정은 미술장식 비용의 축소와 담합과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의원과 정범구 의원은 이 제도를 장식개념에서 공공미술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하여 개선책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제도 이외에 1998년부터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이며 지원비도 한 공원 당 2억 원으로 지원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2002년 말 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조각공원은 모두 27개소이다. 조각공원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술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역시 단지 스튜디오에 있는 조각품을 야외에 세운다는 개념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공공미술로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표 7〉 조각공원 조성 지원 현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조성지 (27개소)	전남 보성	강원 속초 경북 안동 충북 충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부산 남구, 경기 이천, 경기 김포, 경기 안산,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전북 임실, 전남 영암, 전남 해남, 경북 김천	대전 중구 광주 동구 경북 영덕 경남 남해	부산 서구 광주 광산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경남 창원 경남 진해
	(1개소)	(5개소)	(11개소)	(4개소)	(6개소)

※ 출처: 문화관광부, 『2002 문화정책백서』, 2003, p. 49.

### 5) 기업의 미술지원

정부는 기업의 예술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회의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기업메세나협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기업은 2001년도에 85건의 사업에 약 23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지원 금액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이다. 연간 100억~300억 원대를 유지해오던 미술 지원규모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신규 미술관 건립 사업이 2001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표 8〉 연도별 기업 미술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지원건수	미술	79	108	78	140	146	85
	전체	1,183	1,128	620	1,160	1,050	1,034
지원금액	미술	34,280	31,897	25,783	33,566	10,184	2,304
	전체	117,803	107,785	92,573	138,228	62,653	92,936

※ 출처: 한국기업메세나협회, 『2002 기업메세나 연차보고서』, 2003.

기업의 미술지원 방식은 직접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는 방식 위주이다. 이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박물관미술관진흥법이 미술관 설립 및 운영시 제도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기업의 미술관 운영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미술가 및 미술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 연구 등 각종 미술 프로젝트 예산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주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은 미술품 구입을 통해 미술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내에는 기업이 직접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이를 손비처리해주는 세제감면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sup>6)</sup>

〈표 9〉 기업미술관 현황

(단위: m<sup>2</sup>, 점, 명)

기관명	기업명	소재지	부지	면적	소장품	직원
호암미술관	삼성그룹	경기 용인시	91,564	7,475	350	52(32)
위커티미술관	SK 그룹	서울 성동구	-	966	150	1(1)
아트선재미술관	대우개발	경북 경주시	9,974	5,816	120	17(4)
한원미술관	한원그룹	서울 서초구	2,201	479	132	3(1)
소전미술관	극동그룹	경기 시흥시	6,596	961	108	7(1)
아트선재센터	대우개발	서울 종로구	1,338	463	113	5(2)
성곡미술관	쌍용그룹	서울 종로구	8,389	4,813	112	2(2)
한림미술관	대림그룹	대전 중구	3,290	1,260	158	6(3)
금호미술관	금호그룹	서울 종로구	682	1,222	326	10(3)
일민미술관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523	923	109	2(1)
포스코미술관	포항제철	서울 강남구	-	553	116	4(1)
영은미술관	대유그룹	경기 광주군	58,796	-	121	2(2)

※ 출처: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 6) 미술품 유통구조 개선 및 해외 미술시장 개척

국민의 정부 시기는 IMF로 인해 미술시장이 장기 침체의 국면에서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미술품 거래도 감소하여 화랑의 경영난이 극심했던 시기이다. 이는 경기불황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호당 가격제에 의한 가격의 비합리성,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 논란, 느슨한 전속작가제도, 미술품 구입을 투기행위로 인식하는 일부의 시각, 미술품의 보험 및 담보능력

<sup>6)</sup> 한국기업메세나협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전략 연구』, 2002, pp. 39-40.

저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미술시장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이러한 미술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미술품 경매제도에 두고 2000년도에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를 하였다. 그러나 미술품 경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시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국내시장의 침체를 해외미술시장 개척을 통해 풀어보기 위해 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0년도부터 실시하였다. 연간 지원규모는 2억 원으로 (사)한국화랑협회가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운영하였다. 그러나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7) 국제미술교류 지원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미술계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광주비엔날레의 창설이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예술을 통한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제1회 비엔날레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에서 국제비엔날레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역량의 한계로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현재까지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비엔날레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미술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에 창설한 한국국제아트페어도 지원하였다.

### 4.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2002)의 미술 관련 계획

국민의 정부 시기 미술진흥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30일 발표된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정권의 초기에 수립되어 발표되는 데 반해, 이 계획은 국민의 정부가 끝나기 몇 달 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의 정부가 문화산업만 지원하고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진흥을 위해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예술계의 불만이 고조될 대로 고조되었던 당시 상황이 깔려 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대선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중에서 미술과 관련된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미술정책의 목표는 창조단계, 유통단계, 수용단계를 원활히 하여 궁극적으로 미술활동의 활성화 도모
- 창조단계: 작품 공급을 담당하는 작가가 창작에 전념하여 창작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작여건 조성
- 유통단계: 작품의 발표와 전시를 활성화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미술시장의 형성과 국제교류 촉진
- 수용단계: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하여 풍요로운 문화생활 도모
- 추진전략
  - 창작여건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확충 및 미술인구 저변 확대
  - 유통구조 개선과 작품가격 신뢰성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 시행
  - 해외 소개 및 시장개척으로 미술시장 활성화 및 국제화 도모

(표 10)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미술 부문 주요사업

정책 과제	추진 과제
1. 창작여건 조성 및 활동 지원	1-1. 창작스튜디오 조성 지원 강화
	1-2. 신진미술가 지원을 위한 대안공간 지원 다각화
	1-3. 미디어 아트센터 설립 운영
2. 미술시장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2-1. 화랑의 전속작가제도 운영 지원
	2-2. 사이버 미술시장 구축
	2-3. 미술품 유통센터 건립 운영
3. 미술문화 향수권 신장	3-1. 미술은행 설치
	3-2. 미술교육 지원사업 전개
4. 미술인프라 구축	4-1. 도심 미술문화공간 건립
	4-2. 대관전문 미술관 건립
5. 미술 전문인력 양성	5-1.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이 계획은 국민의 정부 말기에 수립됨에 따라 예상하였던 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새 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어서 이 계획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업으로는 사이버 미술시장

건축, 미술품 유통센터 건립·운영, 대관전문미술관 건립이 있다. 둘째, 기존에 미술정책으로 시행해온 사업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업으로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조각공원 건립 지원사업, 해외아트페어 참가 지원사업 등이 있다.

## 5. 결론: 국민의 정부 미술진흥정책에 대한 평가

### 1) 성과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 시기 미술진흥정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민의 정부가 이전 시기에 없었던 새로운 지원사업을 기획해내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창작스튜디오의 조성 과 인사미술공간의 조성 및 대안공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비록 현재 운영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어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창작스튜디오의 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작스튜디오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립 및 사립창작스튜디오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립창작스튜디오인 창동과 고양의 경우, 별도의 운영기구를 만들고 전문가와 전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사립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운영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미술공간 조성 과 대안공간 지원사업은 젊은 미술가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라는 점과 그동안 기금지원이나 미술관 설립 위주였던 미술지원방식을 개개 미술가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미술계 내에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효과는 ‘대안공간 풀’의 2004년도 전시지원 공모(선정 작가 3명)에 100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 2) 한계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기 미술진흥정책이 그 이전의 정책과 비교할 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전 정책의 답습이 많으며 특히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조각공원 건립사업과 같은 문화환경 개선에 미술이 기여할 수 있는 제도나 사업들의 경우 공공미술 내지는 환경조형에 대한 기본 인식 없이 이루어져 이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

고 제도의 왜곡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경우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여전히 문예진흥기금 중 미술지원비율이나 미술관련 정부예산 규모 자체가 적다는 것과 미술을 여전히 회화와 조각과 같은 순수미술장르에만 국한하여 사진, 공예, 디자인, 건축, 미디어 아트 등 시각예술 전반을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미술진흥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근본적인 미술 개념에 대한 반성과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술진흥정책은 근대적 패러다임에 갇힌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주제어

시각예술(visual arts), 예술정책(arts policy),

국민의 정부(Kookmin government), 가치평가(evaluation)

## 참고문헌

- 문공회, 『문화관광연감』, 1998-2002.
- 문화관광부, 『2002 문화정책백서』, 2003. 1.
- ,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 2002.
-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전략 연구』, 2002.
- , 『2002 기업메세나 연차보고서』, 2003.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진흥기금 지원효과 분석』, 2002.
- ,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02.
- , 『영국의 문화정책』, 1999.
- , 『학예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0.
- , 『한국형 미술품 경매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2.

## Evaluation of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

Yang, Hyun-me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visual arts policy during Kookmin government period(1998-2002). In the beginning, many artists had expected president Kim Dae Jung to enlarge arts support. But the evaluation of them was very negative because the government was onl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First, I analys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visual arts.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took the responsibility of visual arts policy. The budget of arts and culture increased to 1%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is period. But the main factor was the increase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expenditure. The budget of visual arts in 2002 was only 6,600million won.

Second, I analysed visual arts support programs. (1) The government introduced studio programs for the first time. For 5 years, 2 national studios and 23 public studios were established. (2) The number of art museum was increased to 62. (3) It introduced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and supported 200million won annually. (4) Percent for art scheme reduced from 1% to 0.7% of total construction cost, but still 27 public sculpture gardens were built. (5) Business support for visual arts reduced because of IMF. (6) Also arts market froze and many commercial galleries were closed. (7)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 through arts and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e, Gwangju Biennale was created.

Third, I analysed Arts Plan 2002. It had a radical limitation because it was established in the last year of Kookmin government period. Also it showed special favors to some arts organizations.

In general, I think that positive outcomes are the introductions of the studio program and the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specially alternative space support program enforced the diversity of visual arts, and encouraged creative young artists. But policy of arts market failed because of IMF and visual artists had to go through rough times.